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특전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아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10	20 시사인사이드	00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50 TV 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특전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재)	00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40 SBS 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청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재)	00 SBS12뉴스 30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55 날씨와 생활
1	30 뉴스특급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제95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2	40 직언직설		35 리얼 스토리 눈(재)	00 SBS 뉴스 10 토크콘서트 화통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제95회 전국체육대회	00 MBC 경제뉴스 10 옹가 소나타 40 헬로킴지 놀라운 자언이아기	00 SBS 뉴스 10 SBS 이수인 사이드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특전 생활체조(재)	00 TV 유치원 풍다공 30 마법 천자문	00 바이클론즈 30 우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투 투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숨터	00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청춘의 도전 전국기능경기대회	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5 달콤한 나의 도시
12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50 TV주치의 닥터 지.바.고	3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①:3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크 (우주를 날다) ①:35 한국인의 법상	35 나이트 라인 ①:05 세상발견 유레카(재)



신해철, 전설로 남다

안녕... 마왕

록음악 대중화 이끈 싱어송라이터
수많은 히트곡 남기고 하늘로 ...

27일 저녁 세상을 떠난 신해철(46)은 1990년대 록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다. 끊임없는 음악적 변신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사회성 짙은 가사로 인식 있는 뮤지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의 음악성과 카리스마에 반한 팬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고, '마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신해철은 서강대 재학 시절이던 1988년 친구들과 함께 밴드 '무한계도'를 결성해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무한계도가 불러 대상을 받은 '그대에게'는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학교 축제나 운동 경기의 단골 응원 레퍼토리로 활용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무한계도 해체 이후인 1990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그는 당시 빼어난 외모와 신선한 음악으로 젊은층의 큰 인기를 끌었다.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안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새로운 뮤지션의 등장을 알린 그는 이듬해 발표한 '마이셀프' 앨범부터 본격적인 '아티스트'의 길을 걸었다. 앨범에 수록된 '재즈카페', '나에게 쓰는 편지', '내 마음 깊은 곳의 너'와 같은 노래를 통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와는 차별화한 음악 스타일을 뽐내며 자신만의 개성적인 음악 세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 솔로 뮤지션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신해철은 1992년 록 밴드 '넥스트'를 결성했다. 이후 넥스트는 1997년 해체되기까지 1~4집을 발표하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록그룹으로 로큰롤 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밴드는 '도시인', '날아라 병아리',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먼훔날 언젠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허어 아이 스탠드 포 유' 등 술한 명곡을 쏟아내며 록음악 팬층을 넓혔다. 하지만 1997년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며 밴드 해체를 선언한 그는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음악과 프로듀싱을 공부했다. 그는 유학을 전후해서는 '크롬', '모노크롬',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팀 또는 개인 활동을 벌이며 전자 음악 사운드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였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는 다시 꾸린 넥스트와 솔로 뮤지션으로서 앨범을 꾸준히 발표했다.

그는 2002년에는 미스코리아 뉴욕 진으로 본선예까지 오른 바 있는 윤원희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부인의 암투병 사실을 알고서 결혼한 사연이 전해지며 감동을 주기도 했다. 신해철은 활동 기간 진술함과 탁월한 언변으로 줄곧 '라디오스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MBC FM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도시'의 초대 디제이로서 진행을 맡았고, 2000년 초에는 SBS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진행을 맡아 팬들과 소통했다. 신해철은 음악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MBC '100분 토론'에 여러 차례 출연해 간통제 폐지를 찬성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뮤지션과 라디오 디제이, 논객으로서 보여준 카리스마로 팬들은 그에게 '마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성향과 발언의 과감성 때문에 그의 음악적 성취와 별개로 반감을 표명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신해철은 오랜 공백을 지나 솔로 6집 '리부트 마이셀프'(Reboot myself)를 발표하며 가요계로 돌아왔다. 또 '넥스트유니티드'를 꾸려 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 활동에 재시동을 걸었다. 또 최근에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진중권 교수 등과 토크쇼 '속사정 살롱' 출연을 예정하며 방송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려던 차였다. 그는 앨범 발매 당시 인터뷰에서 "내 나이가 마흔여섯이다. 아직도 살 빼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쁘게 복귀를 발표했지만 끝내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신해철은 1994년 발표한 히트곡 '날아라 병아리'에서 병아리 '알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젠 아픈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거야' 언젠가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로 태어나줘"라고 기원한다. 1990~2000년대를 그의 음악과 함께 보낸 수많은 '로큰롤 키드'들은 이제 그에게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를 해야하는 슬픈 순간을 맞게 됐다.

31일 발인 앞두고 조문행렬 이어져

검정색 나비 리본과 탁시도를 입은 '마왕'은 당당한 표정이었다. 예쁜 딸을 낳아 준 아내를 위해 만든 신곡을 담아 2007년 발표한 제2 앨범 재킷은 영정 사진이 됐다. 지난 27일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빈소에는 굳은 표정의 동료 가수들과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오후 1시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관식이 치러진 후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다. 오전 11시부터 빈소를 찾은 배철수를 시작으로 이승철, 김현철, 김수철, 박학기, 강인봉 등 동시대를 함께 한 가수들과 하지웅 등 방송에 함께 출연한 지인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시나위의 신대철과 1990년대 같은 소속사(레볼루션) 멤버나인에서 한술밥을 먹은 김해림은 영정을 본 뒤 오열했다. 신해철과 넥스트에서 함께 활동한 기타리스트 김세환을 비롯해 현재 넥스트에서 함께 활동 중인 멤버들도 달려왔다. 조문을 하고 나온 이승철은 "해철이는 고 2때부터 부활 팬클럽 부회장이었다"며 "가요계의 심장, 브라운관 같은 역할을 해줄 친구였다. 지금부터 이해하 하는데... 이런 위치의 가수가 나오기 힘들다. 가슴이 아프다"고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이승철은 "다시 활동을 활발히 하려는 시기에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말 을 잊지 못했다. 김현철은 "충격적이었다. 어제 저녁 비보를 듣고 동료 뮤지션들과 바로 왔다. 그런데 어제는 빈소가 차려지지 않아 조문 할 수 없었고 오늘 다시 왔다"고 말했다. 신해철에게 전하고 싶

은 마지막 말을 묻자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박학기도 "해철이는 입바른 애기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남다른 감성을 갖고 있었다"며 "음악, 가사 모두 가볍게 튀는 게 아니라 두께가 있는 애기였다. 오늘 아침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날아라 병아리'를 함께 들었는데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울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친구인데..."라고 슬퍼했다. 팬들도 길게 줄을 늘어서 조문에 동참했다. 이른 시간 빈소를 찾은 한 남성 직장인은 "초등학교 때 누나를 통해 신해철의 음악을 처음 접했다. 사춘기 시절 넥스트의 음악이 자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탈출구가 되기도 했다.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다. 빈소를 보니 조금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장례식장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당시 상황에 대해 "계속 무의식 상태에서 발음을 따로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해철이 형 자녀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에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지는 모르겠다. 오늘도 웃고 우는 모습을 봤는데 나이가 어린 탓에 실감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부인은 크게 상심한 상태다. 힘들어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빈소 입구에는 조영필, 이승철, YG엔터테인먼트 등 가요계 뿐 아니라 박노해 시인, 방송사 임직원 등 각계에서 보낸 조화가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들어섰다.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9시이며, 고인은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건축물 아틀라스	14:45 미연마이로보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30 EBS 뉴스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5 어린이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정글북	20:40 다크 오늘
07:30 책과 땅(재)	(호수의 나라 말라위)(재)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동동동 유치원(재)	(올라! 멕시코)
08:00 덩동덩 유치원	12:10 EBS 초대세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5 원더볼즈	21:50 EBS 다크 프라임
08:35 방귀대장 풍뎡이	13:10 부모광장(재)	16:45 Why-최고!나 호기심탐지(재)	22:45 국한직업
08:50 Why-최고!나 호기심 탐지	13:40 내 이름은 평기	17:00 방귀대장 풍뎡이(재)	23:35 세계 건축물 아틀라스
09:05 바이오탐험의 파오파오(재)	13:50 뽀롱뽀롱 올리	17:15 바이오탐험의 파오파오	(아시아 맛 기행)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00 시계마을 타기톡	17:30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09:35 따개비 루	14:15 지리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4:10 한국영화특선 <달콤한 신부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1:40 박복의 이수료 만나는 경제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 (사회5-2)
(한국사)	12: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07:30 전철한 수학 익힘풀이 (6-2)	16:50 " (사회6-2)
(한국사)	(수학 I B형)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1:40 수능특강 light	13:00 " (국어 B형)	08:30 한영TESAT 시험대비 강좌	(전과목 6-2)
02:30 " (영어-듣기)	14:00 " (물리 II)	09:10 TV 중학	18:00 TV 중학
03:20 뉴 탐스런	14:50 " (화학 II)	09:50 " (국어 ①②)	18:40 " (영어3-2)
04:10 " (과학)	15:40 " (생명과학 II)	10:30 " (도덕)	19:20 과학탐정단 시드
05:00 " (한국사(해))	16:30 " (지구과학 II)	11:10 " (국어 ③④)	19:40 사이틴-백만이의 지구뉴스
05:50 2013 포스	17:20 " (사회문화)	11:50 " (수학2(하))	20:00 EBS 인문학 특강
06:40 안축탐스런	18:10 " (경제)	12:30 등업산공	(사회1)
07:30 2014 포스	19:00 " (영어)	13:10 " (역사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08:20 수능특강 light(영어-독해)	20:00 EBS-N제	13:50 " (역사2)	22:00 등업산공 (역사(해)2)
09:10 " (영어-듣기)	21:00 " (수학 B형)(재)	14:30 " (사회2)	22:40 한국어능력검정시험(중급)
10:00 뉴 탐스런	22:00 인터넷 수능	(사회3-2)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 3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3:00 " (사회4-2)	24:00 백점공략 (수학(3)-과학(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음 9월 6일 癸酉)

36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마당에서 당혹스럽겠다. 48년생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실행해야 한다. 60년생 정보에 밝아 야한다. 72년생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84년생 골목길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94	42년생 별도의 것이 근간을 이루라. 54년생 진행하는 것에 자질이 빛어질 수도 있겠다. 66년생 1차적으로는 무난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78년생 신중함보다 과감한 행동력이 절실한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61, 16
37년생 절제만이 성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49년생 선행되어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니. 61년생 막힘이 없으니 만사행통 하겠다. 73년생 한계를 느끼거든 즉시 변화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75	43년생 소모적이라면 한 시 바빠 벗어나야 할 것이다. 55년생 배과 화해를 잘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67년생 기자 화성하는 기분이 매우 늘 것이다. 79년생 머지않아 승운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58, 82
38년생 지나치게 맹신한다면 잃으리라. 50년생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발전을 도모할 것임에 틀림없다. 62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로다. 74년생 대비하고 있으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38, 90	44년생 분수에 맞게 임해야만 복도 따르는 법이다. 56년생 제3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68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리라. 80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행운의 숫자 : 71, 79
39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51년생 직접 행해야 얻는 바가 많겠다. 63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75년생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참다운 결과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91, 67	45년생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날로 새로워 질 것이다. 57년생 일관된 자세로 지속되어야만 효과가 있다. 69년생 의식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81년생 조금이라도 위함이 예상 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5, 27
40년생 의외의 것이 눈에 띄었지만 의미부여 할 필요는 없었다. 52년생 목자의식을 갖고 임하라. 64년생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76년생 근본적인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8, 23	46년생 황재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다. 70년생 조금만 더 참아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2년생 국면을 확실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09
41년생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겠다. 53년생 서두르면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65년생 쌍방에게 공히 생산적이어야만 실적이 있다. 77년생 전환하는 판국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49	47년생 확인 되지 않았다면 실행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9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전망이 밝아진다. 71년생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83년생 계획 수립으로 무척 부산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8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JTBC '비정상회담' 日 국가 배경음악에 비난 봇물

제작진 "신중하지 못한 선택... 사과드린다" 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을 상징한다는 게 기미가요를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비정상회담'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출연자 등장시에 사용한 배경 음악은 그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제작진의 잘못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세계 각국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성을 알아가고자 했던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각 나라 상징에 대한 국민 정서와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작진 "신중하지 못한 선택... 사과드린다" 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을 상징한다는 게 기미가요를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비정상회담'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출연자 등장시에 사용한 배경 음악은 그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제작진의 잘못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세계 각국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성을 알아가고자 했던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각 나라 상징에 대한 국민 정서와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